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509-515,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1.509

베이비붐 세대와 대학 평생교육 체제의 재구조화

황재연[1], 안관수[2*]
[1]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초빙교수, [2]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Reorganization of the Baby-Boom Generation and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Jae-Yeon Hwang[1], Kwan-Su An[2*]
[1]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Won Kwa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Won Kw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의 분석과 고등교육의 역할 그리고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 현황,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 현황 및 학습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현행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 융합, 베이비붐 세대, 대학 평생교육 체제, 학습욕구, 재구조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arning needs for lifelong education of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and to reorganization plan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at higher education levels to realize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lifelong learning for each age group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and learning need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Based on this, present lifelong learning reorganization plans in universities examine for the realiz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ystem.

Key Words : Convergence, baby boom generation,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university, learning needs, reorganization.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경제상황의 변화는 더 이상 교육의 목적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주목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에서도 간학문적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의 신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 즉,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는 어느 세대이든 평생 동안 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조성과 함께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성인의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형식·비형식교육)을 살펴보면 41.2%로 10명 중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 참여율 30.5%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이처럼 범국가적으로 평생학습사회 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양적 측면의 확대만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Corresponding Author : Kwan-Su An(ksan@wku.ac.kr)
Received September 4, 2019 Revised October 10,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없다. 평생학습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고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사회로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관 운영 실태분석, 프로그램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의 정책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3]. 그러나 세대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사회로의 교육체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소수의 엘리트에서 다수의 대중에게로 확장을 가져왔다. 이 같은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성인들의 연령층의 확장은 고등교육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해 연구[4]가 진행되었다. 그들의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의 연구는 고등교육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 즉, 학위 취득만으로 단순화한 결과들은 있었으나 고등교육의 경험이 학습자들에게 학위 취득과 함께 어떤 경험과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OECD가 2005~6년에 걸쳐 추진한 '학습의 사회적 성과' 프로젝트 SOL(Social Outcomes of Learning: 1 phase)에서 교육이 건강, 신뢰, 시민참여, 정치적 효능감, 사회 통합 등 '사회적 성과'를 주목하게 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5]. 이와 같은 연구 결과[4]는 고등교육의 교육적 성과를 단순한 요인으로 보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사회적 성과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다양한 학습욕구의 분석과 고등교육의 역할, 나아가서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평생교육 요구 분석

베이비붐 세대란 특정 시기에 출생아가 폭증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나라마다 태어난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 출생코호트를 보면 9개를 포괄하는 집단으로 되어있다. 이 세대는 50년대 중반과 60년 초반에 걸쳐 있어서 연령차가 크며, 경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속하는 가에 따라 교육, 취업 등의 기회나 생활방식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를 보면 같은 베이비붐 세대일지라도 출생연도 별로 사회적 경험과 의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6-8]. 구체적으로 이 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를 50년대 생 베이비붐 세대와 60년대 생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은 교육정책과 사회적 경험이 다른 것으로 보고한다.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 즉,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1970년 전후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경험하였고, 그 중 대학은 28%만 진학하였다[6,7]. 이들이 사회로 진출한 1980년 시기는 격동의 시기로 개인의 직업, 사회, 경제 변화에 따라 교육기회 및 성취에 대한 경험이 베이비붐 후기세대와 다르며, 교육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은 학습에 대한 의미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선택할 때 교육에 대한 학습욕구도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1. Baby boom generation of academic background

Division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Above university graduation
Total	26.6%	51.3%	22.7%
The former part of baby boom	36.9%	46.9%	16.2%
The latter of part baby boom	23.6%	53.2%	23.2%

또한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1970년 중반에서 1980년 초반에 대학 진학률이 30%를 넘지 않아 대학졸업장을 갖는 소수 그룹은 학력이 주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었다[7].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진학을 못한 70%의 그룹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임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내재적 학습동기가 학습욕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 베이비붐 세대를 평생교육 학습대상자로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1/3 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다는 점,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2018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Age-specific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ate

age	25-34	35-44	45-54	55-64	65-79
Total participation rate	52.0%	44.1%	41.8%	34.8%	32.7%
Formal education	8.5%	2.0%	1.1%	0.2%	0.1%
Nonformal education	48.3%	43.8%	41.5%	34.6%	32.6%
Vocational education	28.6%	22.8%	21.2%	13.4%	5.5%

2018년 평생학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0년에 25.2%에 비해 2018년은 34.8%로 나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교육 0.2%, 비형식교육 34.6%, 직업목적 13.4%로 형식교육보다는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비형식교육을 받는 이유 중 직업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형식교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일경[6]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비교하면서 형식교육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고학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식교육(대학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의 기회여부 및 교육적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 시절 고등교육의 기회를 상실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성인학습의 참여 동기에 따라서 형식교육인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3. Reason for deciding to lifelong education

Division	The former part of baby boom	The latter of part baby boom
To experience or learn new things	3.91	4.10
To maintain or increase income level	3.41	3.68
To become more recognized in the society	3.50	3.59
To meet and get to know more people	3.56	3.60
To become a more upright person	3.39	3.48
To create a healthier society and world	3.50	3.42
To enjoy more plentiful leisure life	3.94	3.94
To recover or improve physical health	3.88	3.77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요구를 분석한 노일경 외[9]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욕구가 전기 세대와 후기세대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목적'을 묻는 항목에서 베이비붐 전기 세대와 베이비붐 후기 세대를 비교해 보면,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보다 풍성한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해서(3.94)',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3.91)', '신체적 건강이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서(3.88)'순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4.1)', '보다 풍성한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서(3.94)', '신체적 건강이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서(3.77)' 순으로 응답하였다. 베이비붐 전기 세대와 후기 세대의 응답한 내용을 보면 학습의 동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institutions and system suitable to enter higher education

The institutions and system suitable to enter higher education	The former of part baby boom	The latter part of baby boom
Middle and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1.4%	1.4%
Air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s	1.0%	0.5%
College	5.8%	6.4%
University	30.6%	23.9%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1%	11.0%
cyber university	9.2%	12.4%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self education and Academic credit bank system	3.7%	5.0%
Graduate school	29.6%	25.2%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graduate school	3.7%	6.4%
Cyber university graduate school	6.1%	6.9%
etc	0.6%	0.9%
Reason for deciding to enter higher education	The former of part baby boom	The latter part of baby boom
support for employment/ promotion/ turnover/ business establishment	21.7%	34.2%

social recognition and honor	9.3%	8.7%
acquisition of knowledge above university level	8.3%	9.5%
expansion of personal connections	7.1%	6.0%
advance to post-graduate degree	2.4%	4.4%
experience university life	9.3%	5.3%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new challenges	42.1%	30.6%

또한,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희망하는 고등교육 참여 기관과 진학 동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향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4년제 대학(30.6%)을 선호하였으며,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대학원(25.2%)로 응답하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 여부에 따라 진학기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른 질문으로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감(42.1%)'이 높은 응답을 차지한 반면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취직/승진/이직/창업 도움(34.2%)'가 가장 높았다. 이는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배움 그 자체에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식교육 진학시 선호하는 전공분야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어학(16.1%), 사회과학(15.3%), 심리(13.6%)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심리(13.6%), 어학(11.8%), 사회과학(11.6%) 순이다.

Table 5. Preference major in formal education to enter higher education

Division	The former of part baby boom	The latter of part baby boom
Language(english, chinese, japanese etc)	11.8%	16.1%
Social sciences related to psychology, culture and human behavior	13.6%	13.6%
Social sciences practical field	11.4%	15.3%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 Youth Studies, Child Stud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6.4%	7.6%
Liberal Education of Humanities, Philosophy, History, Religious, etc	9.5%	1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상적 교육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감'이라는 높은 진학동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배움' 자체가 목적이며, 이를 통해 개별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려는 동기부여 관점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평생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학습의 의미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은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평생학습은 유효생산인구로써 필요한 인적자원 측면과 개인의 생애주기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자아실현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서 평생학습은 한편으로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자기 성장의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학습자가 제2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증진 및 자아실현의 측면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의 평생교육은 이들의 학습욕구의 특성상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베이비붐 세대와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오늘날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장되면서 고등교육은 보편화·대중화 양상을 띠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양적 변화와 함께 질적 변화를 논하게 되면서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10,15,16]. 이러한 변화는 고등교육의 참여 인구 증가와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욕구의 다양화 등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6,7,11].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증가된 성인 인구 자체가 교육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학습욕구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변화 추이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적·사회적 차원

에서 인적자원의 확보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역량을 계발시켜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직무역량 강화와 재적응을 중시하는 기업교육의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평생교육의 목적을 다차원적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영향 탓으로 교육의 성과를 인적자본론적 관점에서 단순한 요인으로 본 결과이다. 즉,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를 직업역량과 소득의 향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한정 짓는 것은 고등교육의 의미를 극히 소극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전공지식의 습득 외에도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안목을 접해서 지성과 덕을 겸비한 이상적 인간을 길러낸다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12].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대학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여전히 고등교육 참여를 통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이나 재취업교육 등의 수요 증대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의 2019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욕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의 의미는 복잡다단하기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성인학습자들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서 기대하는 학습의 의미가 다르기에, 평생교육의 의미와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재연[11]은 현행 대학 중심의 성인화적인 체제 구축이 성인의 학습욕구를 취업 및 재취업과 같은 인적자본론적 관점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평생교육은 'to have'만이 아닌 'to be'를 위한 교육,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성인학습자의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은 곧 대학을 평생 개방형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삶과 경험 등이 학습 성과로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일반 대학생과 성인학생이 공동의 문화화 및 학습과정을 통해 세대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공감하면서 공동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13]. 또한 대학이 이처럼 세대간 통합형 평생교육체제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성인학습자는 스스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된다. 성인학습자의 삶과 경험들이 일반대학생에게 훌륭한 교육자원으로 활용되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정책은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후진학 제도의 정착뿐만 아니라 성인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즉 성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성인친화적인 대학의 교육환경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일과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속교육,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보상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성인의 다양한 학습욕구가 충족이 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증진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회정책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고등교육의 의미를 계속교육과 보상교육의 차원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교육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이 계속교육과 보상교육의 차원 외에도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성인친화적인 개방형 교육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학력이 높고, 건강한 노인이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성인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령층의 감소와 계속적인 학습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평생교육의 풍부한 잠재적 학습대상자로 부상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초기 중・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개념과는 달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비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은 형식교육 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들로 표출되고 있음을 베이비붐 세대 관련 연구[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경험에 의해 달라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욕구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단편적으로 취업 및

재취업, 후진학을 위한 제도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학습욕구를 반영하는 방안, 즉 성인세대의 삶의 경험, 기술, 태도, 지식, 자아실현 욕구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향후 대학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평생학습사회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대학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겉으로는 성인친화적 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의 도구로서의 인적자원 개발교육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학습사회의 고등교육은 성인학습자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사회와 개인이 접목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비로소 성인학습자는 자아실현 및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선행연구[6,11,13,14]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대학의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요구와 자아성장 그리고 사회결속의 학습권 등을 골고루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정책은 다양한 세대간의 지식과 문화통합,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두루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고등교육 참여자로 부상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향상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0). *2010 Lifelong learning survey in Korean Adults.*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2018). *2018 Lifelong learning survey in Korean Adults.*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3] A. J. Hong, J. H. Lee & G. M. Park. (2016). Provision Pattern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alysis of 2011-2015 Lifelong Education Statistics Data.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4(3)*, 249-281.

[4] H. Y. Jung, M. S. Jeong, C. G. Youn, S. M. Jin & H. S. Kuk. (2015). *An analysis on Social outcomes to participation in Lifelong Higher Education of Adult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5]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2006). *Measuring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6] I. K. Noh. (2011). Lifelong Learning of Baby-Boom generation in Aging Era. *The HRD Review. 14(4).* 89-144.

[7] H. N. Phang, S. K. Lee, S. J. Woo, K. H. Kim & J. K. Kim. (2011). *Study on the Work Life and Retirement of the Baby-Boom Generation.* Seoul: Korea Labor Institute.

[8] G. H. Han. (2013). Baby Boomers in the Korea: Understanding of the Lifecourse and Lifeworl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Workshop presentation file,* 3-13.

[9] I. K. Noh, Y. K. Yun, Y. M. Son, A. N. Yan & H. Y. Lee. (2011).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the Second Life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for the Life Cycle of 40s to 50s.*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10] S. H. Han & E, J. Lee. (2016). The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Its Systemic Complexity : The Chemical Transformation to Higher Lifelong Learning Complex System.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2(1).* 1-31

[11] J. Y. Hwang. (2018). Analysis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Adult Empowerment *Enhanc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245-252.

[12] S. D. Nam, C. H. Shin, M. H. Yu & J. H. Bae. (2014). *Strategies of the Specialization of General Education in the Broadcasting University for the Improvement of Life Competence of Adult Learners.*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13] K. S. An. (2000). A Study on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and the Interchange of generation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3(4),* 1-16.

[14] S. M. Nam. (2015). Role and Reform Agendas of University as Community Lifelong Learning Institut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3).* 71-96.

[15] Y. K. Chung & J. R. Kim. (2018). Factors to Disturb Adult Learner's e-Learning Persistence: A Case Study of H-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2).* 109-122. https://doi.org/10.14400/JDC.2018.16.12.109

[16] M. D. Yun & Y. W. Seo. (2019). The Affect of the University's Response to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n the Perceived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 Focused on Junior Colleg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3).* 139-152. https://doi.org/10.14400/JDC.2019.17.3.139

황 재 연(Jae-Yeon Hwang) [정회원]

· 2009년 2월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16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초빙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 E-Mail : hjy2011@wku. ac.kr.

안 관 수(Kwan-Su An) [정회원]

· 1986년 8월 : 독일 Dortmund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학사)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3년 5월 ~ 현재 : 인문사회융합콘텐츠 센터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학, 교육사회학, 지털인문융합연구
· E-Mail : ksan@wonkwang.ac.kr